욕망과 금기의 균열
-사쿠라바 가즈키의『내 남자(私の男)』와 박범신의『은교(*Eengyo*)』를 중심으로-

박성희*
seongheeo21@hanmail.net
허배관**
bghur@deu.ac.kr

<目次>

1. 들어가며
2. 욕망 : 삶의 유한성에 의한 존재론적 슬픔
3. 금기 : 윤리적 사회의 틀 속에 억압당해 있는 원초적 본능
4. 균열 : 욕망과 금기에 관한 딜레마
5. 나오며

主題語: 욕망(desire), 금기(taboo), 균열(crack), 내남자(*My Man*), 은교(*Eengyo*)

1. 들어가며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인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담론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소설이나 영화라고 할 것이며 이들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은 그 사회상의 반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선진적이고 실험적인 작업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의 소설『롤리타(*Lolita*)』도 그 중 하나였을 것이다. 1955년 프랑스에서 발간되어 판매금지 되었으나 1958년 미국에서 다시 발간되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이후 아드리안 린(Adrian Lyne) 감독에 의해 <롤리타>로 동명영화화 된다. 그런데 이『롤리타』의 일면을 2012년 한국의 <은교>[1]와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외래교수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2014년 일본의 <내 남자>에서 만날 수 있었다.[2] 『롤리타』에 등장하는 천재와 악, 죄와 벌, 진정한 재능과 거짓 재능 등 문학의 영원한 소재 등을 역시 여기서도 읽을 수 있었다. 소설의 남자 주인공 험버트 교수는 자신의 의붓딸인 12세 소녀 롤리타에게 집착을 보이다가 결국 아내를 사고로 죽이고 롤리타를 차지하게 된다. 현대에서 롤리타신드롬[3]은 세기말 현상 중의 하나로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여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대가로 중년남자와 사귄다는 '원조(援助)교제'도 일종의 롤리타신드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2세의 귀엽고 도발적인 롤리타 대신 풋풋한 여고생 「하나(花)」나 「은교」가 대치될 수 있다. 험버트 교수역에는 의부인 「준고(腐野淳悟)」나 「이적요」 시인이 맡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극작가 퀼티의 역할은 「요시로(尾崎美郎)」나 「서지우」가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서사구조에는 유사한 플롯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쿠라바 가즈키(桜庭一樹)의 『내 남자(私の男)』는 2007년 제138회 나오키상(直木賞)수상작으로, 수상 당시 일부 심사위원의 비판을 비롯해 논란을 겪은 작품이다. 일본 내에서 영화화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근친상간이라는 금기의 소재는 물론 세상과 단절된 장소로 그려지는 홋카이도의 서늘한 풍경도 큰 난관이었다고 한다. 쿠마키리 카즈요시(熊切和嘉)감독은 「세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두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실제로 내가 홋카이도 출신이기도 한데, 원작에는 90년대의 오쿠시리(奥尻島) 지진[4]이라든지 홋카이도의 어두운 면 같은 게 잘 그려져서 그런 점에서도 강하게 끌렸다. 영화로 실현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5]고 한다.

박범신의 『은교』(문학동네, 2010)는 영화 <은교>(정지우 감독, 2012)의 원작소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화 <은교>가 대중적 호응과 더불어 비평적 관심을 불러 모으면서 장편소설 『은교』에 대한 논의들 역시 영화와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두 작품의 소설과 영화, 4개의 텍스트 중 영화자료를 보조위치에, 소설

---

1) http://blog.naver.com/corazon27/50176073589 <은교>의 경우 「한국판 롤리타 영화 <은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2) 이 글에서는 소설과 영화를 구별하기 위해 이하 소설의 경우『롤리타』식으로 영화의 경우 <롤리타>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Lolita Syndrome)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 『롤리타 Lolita』이 소설에서 묘사된 어린 소녀에 대한 중년남자의 성적 집착 혹은 성도착을 롤리타신드롬이라고 한다. '롤리타콤플렉스', '님페트'라고도 한다. (『두산백과』)

4) *진원일시 : 1993년 7월 12일 22시 17분 34.6초, *진앙 :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해역(북위 42.8°, 동경 139.2°) *규모 : 7.8° *지진해일 발생현황 : 지진발생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1시간 30분~3시간 동안 10분 주기로 지진해일이 밀려와 많은 피해를 주었음.

5) 2014 BIFF, 아사노 타다노부 "김기덕 감독과 작품을 하게 될 지도", 맥스무비 취재팀 press@maxmovie.com. (2014.10.03 15:44)

『은교』와 『내 남자』를 중심에 두고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6]

소설과 각색 영화가 함께 비교·연구될 수 있는 것은 표현의 방식에서는 상이하지만 두 장르 모두 이야기를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진다.[7] 즉 소설과 영화는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와 담론을 가진 서사물이라는 점에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 담론의 장으로 확장되면서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의 경우, 기존의 독자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상업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산업에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소설과 영화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원작에서 느낀 감동의 충실도, 원작 훼손의 우려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앞으로도 국내외를 떠나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리라 생각된다.

소설과 영화 『내 남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나오키 상 선고 위원인 작가 아사다 지로(浅田次郎)가 본 작품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추천한다」고 격찬했다. 문학평론가 도요사키 유미(豊崎由美)는 「더러운 늪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 같은 소설」이라고 평하고, 평론가 오모리 노조미(大森望)는 이 소설에 대해 「믿을 수 없이 관능적인 묘사의 배후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사랑이 엿보인다. 상식을 가볍게 짓이기며 전개되는 가장 위험한 러브 스토리, 이렇게 강하고 격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연애소설은 처음이었다.」고 했다.[8] 문예평론가 기타가미 지로(北上次郎) 는 「아무런 예비지식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읽기를 권한다. 동경 도심으로부터 북쪽 바다로, 24살에서 9살의 일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이다. 준고와 하나의 금지된 사랑과 性의 나날이 압도적이고 박력 넘치게 때로는 조용하고 어둡게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 너무 멋지다. 사쿠라바 가즈키의 혼신의 역작」[9]이라고 평하고 있다.

소설에서의 스토리 전개는 현재시점에서 시작해 점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남녀의 흔적을 따라가는데, 사쿠라바 가즈키는 영화 <박하사탕>에서 힌트를 얻어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10]고 한다.

영화화로는 스토리의 시계열이 원작과 달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형태인 점과 「하나」의 살인 증거품이 다른 것이거나 약혼자가 다른 이름이거나, 결말도 다른 점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화의 경우 2014년 6월 14일 공개되었고 닛카츠(日活) 제작의 15세 관람가 작품이다. 2014년 제3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정식 출품되어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택되는

6) 텍스트는 桜庭一樹(2010)『私の男』文藝春秋、박범신(2010)『은교』문학동네로 한다.
7) 최혜실 외 지음(2007)『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다홀미디어, p.138
8) 大森望・豊崎由美さんの「文学賞メッタ斬り!2008年度版　たいへんよくできました編」パルコ刊。
9) 桜庭一樹(2010)『私の男』文藝春秋、p.450
10) 사쿠라바가즈키 나오키상 수상 인터뷰

것과 동시에 주연 아사노 타다노부(浅野忠信)가 최우수 남우상을 수상했다. 제69회 每日 영화 콩쿨에서 일본 영화 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11]

소설과 영화 『은교』에 대한 선행연구[12]로는, 소설 『은교』가 「노인의 늙음에 대한 성찰과 욕망이 강조된 서술」이었다면 영화 <은교>에서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차이가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견해[13], 소설 『은교』에 나타나는 액자형 구조와 내면 서술, 주인공 이적요의 과거 삶의 내력 등이 영화에서 삭제, 축소되는 과정을 통해 영화 <은교>에서는 원작에 비해「관객에게 해석과 의미화를 부여하는 불확정성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강조하는 논의[14] 등이 있다.

이 소설들은 추리소설이나 범죄소설로도 읽을 수 있고 강렬한 연애 소설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삶의 궁극적 질문에 관한 존재론적 소설로도 읽을 수 있다. 즉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두 소설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용상 『내 남자』의 경우 1장에서 6장까지 구성되며 각 장마다 하나, 요시로, 준고, 하나, 고마치, 하나의 각 일인칭 시점으로 된 5가지 시점의 6가지 글이, 시간을 역순으로 배열되어 구성되어 있다.

『은교』에는 세 가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적요가 화자인 글」, 「서지우가 화자인 글」, 「변호사가 화자로 된 글」이 그것이다. 다만 『은교』는 각 일인칭 시점으로 된 세 가지 시점의 글이 교차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일인칭 시점의 소설이 영화화되기 위해 주관적 시점화가 구현되었고, 소설에서 지문으로 씌어 있는 부분이 미장센으로 구체화되었다.

---

11) 제13회 뉴욕・아시아 영화제(2014년) 라이징 스타・어워드(二階堂ふみ)
제3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2014년)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남우상(浅野忠信)
제6회 TAMA 영화상(2014년) 최우수 여배우상(二階堂ふみ),최우수 신진 남우상(太賀)
제38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주연 여배우상(二階堂ふみ)
제69회 毎日映画 콩쿨 일본 영화 대상
제57회 블루 리본상 주연 남우상(浅野忠信)
제10회 오사카 시네마 페스티벌 2014년도 베스트 텐 제 5위, 촬영상(近藤龍人) 등

12) 황영미(2013)「박범신 소설 『은교』의 영화화 연구」『영상예술연구』22집
최배석(2013)「소설의 영화로의 매체전이에 따른 불확정성 영역에 관한 고찰-박범신의 소설 『은교』와 정지우의 영화 [은교]를 텍스트로 하여」『영화연구』57호
정한석(2012.5.24) 「깨달음에 관한 슬픈 시가 있네」『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69934
이채원(2012)「(대중)소설과 (대중)영화가 당대의 사회 규범과 소통하는 방식-소설 『은교』와 영화 [은교]를 중심으로」『문학과 영상』제13권 4호
이미화(2013)「박범신 『은교』에 나타난 노년의 섹슈얼리티 연구」『우리어문연구』40집
김나정(2010)「야멸친 베스트셀러 독서법」『작가세계』

13) 양윤의『여자라는 아토포스』교보문고, 김은혜(2013)『영화<은교>에 나타난 에로티시즘』한국외대

14) 류재용(2014)『영화와 소설의 장르별 서사구조와 의미구조의 차이』성균관대, 신종곤『영화<은교>의 각색 연구』어문논집 68

두 작품은 이상과 같은 각색상의 유사성과 함께 소재의 유사성[15], 양식의 유사성[16], 발표 방식의 유사성[17]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양국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 속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삶의 유한성에 의한 존재론적 슬픔에 따른 깊은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윤리적 사회의 틀 속에 억압당해 있는 원초적 본능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금기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당대 한일 양국 사회문화의 이해와 문학적 교류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고 생각한다.

2. 욕망 : 삶의 유한성에 의한 존재론적 슬픔

『내 남자』의 11세[18] 하나와 27세 준고는 무의식적으로 가족이 되기를 욕망한다. 『은교』의 37세 서지우는 작가로서의 성공을 욕망한다. 69세 노시인 이적요는 17세 소녀 은교를 욕망한다. 은교는 욕망을 자극하는 존재이다.

흔히 욕망[19]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거나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 작가 사쿠라바 가즈키는 나오키 상 수상 소감 인터뷰[20]에서 『내 남자』의 집필 과정에 대해 「이 소설의 냄새와 색채를 재현하기 위해 나는 어두운 소설의 세계에 푹 빠져야만 했다. 글을 쓸 때는 며칠이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밝힌다. 등장인물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냄새와 색채로 지금까지의 삶을 설명한다. 「그에게서는 비 냄새가 난다. 큰 키에 쓰러

15) 두 작품 모두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이 그려진다.
16) 두 작품 모두 소설 발표 후 영화로 각색 제작되었다.
17) 桜庭一樹의『내 남자(私の男)』는 격월간 소설잡지『별책문예춘추(別冊文藝春秋)』에 2006年 9月호(265호)에서 2007年 7月호(270호)까지 연재되었다. 『은교』는 박범신의 개인 블로그에 연재될 당시 『살인당나귀』였다.(2010.1.8~2010. 3.4, 총 44회)
18) 본문에는 9세로 나오나, 여기서는 두 작품 모두 한국나이에 맞춰 11세로 한다.
19) 욕망(desire)은 라캉에 의해 정신분석학의 핵심 용어로 부각된 개념으로 이에 해당하는 프로이트의 용어는 소망(wunsch)이다. 라캉에게 욕망이 결여를, 욕구(need)는 생물학적 필요를 의미한다면 요구(demand)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기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문학비평용어사전』국학자료원, p.561)
20) 첫사랑은 셜록 홈즈이며,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장대한 이야기에 푹 빠졌다는 사쿠라바 가즈키는 1971년 일본 돗토리현에서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필 활동을 하다가 1993년 DENiM라이터 신인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2003년『GOSIK』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며 히트 작가 대열에 올랐고 2007년에『아키쿠치바 전설』로 제60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제138회 나오키상을 수상한『내 남자』는 현재 시점에서 시작해 점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남녀의 흔적을 따라가는데, 사쿠라바 가즈키는 영화 <박하사탕>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작은 체구에 뽀얀 피부, 나긋나긋한 태도와 조용한 말투, 그런 그녀의 내면에 마그마가 숨어 있었다." 일본 한 신문의 그녀에 대한 표현이다.

질 듯 마르고 제멋대로 자란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찰랑 거리는 그. 몰락한 귀족처럼 매끄럽고 우아하다. 그 남자가 바로 내 남자다. 나쁜 남자…… 내 남자」라고 밝힌 하나는, 처음의 의도와는 별개로 내 남자를 욕망하며 자라난다.

하나와 준고는 끊임없이 가족이란 존재에 대해 회의하고 소속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는 겉보기엔 완벽한 가족에 속해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가족을 욕망한다.

하나에 대해서「많이 컸구나」「통 안 닮았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빠는 잠자코 웃는데 엄마는 기운이 쭉 빠져했다. 바로 옆에 큰고모네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도 오빠나 동생에게는 싱글벙글 웃지만 하나를 멀리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마음 한구석으로는 언제나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바다를 보면서「누가 나를 데리러 와 주지는 않을까. 나를 잘 아는 누가,」 하고 생각하면서 지낸다.「하나야, 힘내! 꼭 살아야 한다!」오쿠시리 지진으로 파도가 밀려와 겹치고 뒤엉키듯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하나를 제외한 진짜 가족끼리만 바다 너머로 가 버리고 말았다. 어린 하나는 본능적으로「가족이란 게 대체 뭐지?…」를 반문한다.

「야, 많이 닮았는데.」「내 아이니까, 당연하지.」 뻣뻣한 제복에서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나는 쿠사리노라 불렸던 아저씨가 진지하게 대답한다. 그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을 느꼈던 출생에 대한 비밀이 밝혀진다. 다케나카 하나(竹中花)가 쿠사리노 하나(腐野花), 즉「썩은 밭에서 핀 꽃」이 되는 순간이다.

> "오쿠시리 섬에 왔던 적 있어요?"
> "중학생 때, 겨우 반년이었지만."
> "우리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친척이라서, 네 집에 한동안 신세를 졌었지. 우리 아버지와 네 아버지가 사촌간이야. 너희 아버지는 외지에서 돈벌이를 하느라 종종 집을 비웠어. 네가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까지. 그 후로는 한 번도 와 보지 않았는데. 나도, 싫증이 났고." (p.372)

그렇다면 준고와 하나 아빠는 5촌이 되고 하나와 아빠는 6촌이 되는 셈이다. 하나가 자라는 동안 도시에서 오는 손님 중에는 해마다 와서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준고의 선배였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 "……어이, 어쩌지? 이 아이가 날 기억하고 있으려나?"
> "벌써 알고 있습니다. 선배가 내 스파이였다는 거, 사진, 제 손으로 봤으니까."
> "그럼 네가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
> "……글쎄요."

"글쎄요 라니, 너 말이야." (p.436)

그렇다면 이중의 근친상간[21]이 성립하게 된다. 혼외 사생아 하나를 낳은 엄마의 상대가 친척 준고이고, 하나와 준고가 부녀 근친상간을 맺게 되므로 이중의 근친상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근친상간은 어떠한 법률적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제약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그것도 근대에 들어와서 일이다.[22]

결국 양부가 타지로 돈 벌러 나간 사이에 준고와 하나 엄마 사이에서 하나는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키워지지만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며 외롭게 자라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막연하나마 본인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진짜 가족을 찾고자하는 강한 욕망이 자라난다.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어부로 살았어. 내가 너만 할 때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했지. 그게 끝이야. 그 커다란 아버지를 바다가 삼켜 버렸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지만, 언젠가 나도 바다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랬더니 조금도 안 무서웠지. 중학교에 다닐 때쯤이었을 거야."
"죽었지 . 엄마는 병으로 뭍에서." (p.379)

「비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바다에서 사라졌으니까 묻혀있는 것은 어머니의 뼈뿐이다. 죽으면 준고도 하얀 뼈가 되어서도 헤어지지 않는 거구나」라며 바닷물에 휩쓸려 간 가족을 떠올린 어린 하나는 속이 울렁거리고 등이 오싹해짐을 느낀다. 이 사람도 고아로구나, 하고 문득 깨닫는다. 보기에는 다 큰 어른이지만 자신과 똑같다고 느낀 하나는 준고에게 애착과 연민을 느낀다. 또한 하나에겐 마냥 두려운 존재인 바다가 오히려 준고에겐 고향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

"……난, 죽을 때는 반드시 바다 옆으로 돌아올 거야. 어디에 있든." (p.380)

이번을 계기로 하나는 가족에 대한 나름의 개념을 세우게 된다.

"가족이란, 같이 죽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쩌다 잘못해서 살아남은 아줌마가 그랬어." (p.381)

---

21) 근친상간에는 부녀상간, 모자상간, 남매상간 동성상간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상균 외(2014)『인간의 성』바이오사이언스출판, p.616)
22) 일본고전독회(2013)『에로티시즘으로 읽는 일본문화』제이엔씨, p.41

그리하여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 나름의 가족의 상이 잡힌다.「왜 나만 남겨두고 갔어. 살라고 하지 말고 같이 죽었으면 좋았잖아. 아빠는 매정한 사람이야.」그때 하나 안에서 마구 요동쳤던 증오는 지친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점점 뒤틀리고 흉측하게 부풀어 갔다.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날 또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준고 거라는 말, 그럼 우리가 가족이란 뜻이야?" (p.423)

쿠사리노 하나는 떨어지지 않게 목을 꼭 끌어안고 비처럼 눅눅한 준고의 체취를 맡는다.[23] 불현 듯「이게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 나는 이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 냄새 같은 체취를 풍기는 이 양아버지가 바로 내 남자라는 것뿐이다.」이것이 쿠사리노 하나의 선택이다.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24] 대신에 쿠사리노 하나는 사생아라는 태생적인 운명과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계기로 근원적인 욕망과 그리움으로 가족을 꿈꾼다.

한편 소설『은교』가 노인의 늙음에 대한 성찰과 욕망이 강조된 서술이 강조되었다면 영화 <은교>에서는 표면적으로 은교의 캐릭터가 뚜렷해지면서 노년과 청년과 소녀와의 관계와 갈등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어 드러난다.

"누구세요?"
"사다리요!, 담에 사다리가 있던데……."
"이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어요. 잠깐 앉았다 가려고 그랬는데…이 의자 주인이세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도착한 이적요 시인은 자신의 의자에 잠들어 있는 한은교를 보게 된다. 여기서 영화와 소설이 다른 점은 서지우와 한은교의 만남이 영화에서는 여기가 처음이지만 소설에서는 사실 그전에 이미 만난 사이로 나온다.

23)「인간의 가슴속으로 들어간 냄새는 그곳에서 관심과 무시, 혐오와 애착, 사랑과 증오의 범주에 따라 분류된다. 냄새를 지배하는 자, 바로 그가 인간의 마음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파트릭 쥐스킨트 저·안성권 역(1992)『향수』재원, p.165)

24) 혼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혈연중심 집단으로, 부모 부부 형제 자녀 등으로 구성된 생활공동체 거주 집단이며,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이다.(남경태(2006)『개념어 사전』들녘, p.73)

>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뜻을 가진 적요(寂寥)라는 이름은 물론 필명이다. 그는 이십대 때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 폭풍 같은 혁명의 전사가 되길 꿈꾸었고, 삼십대 십년은 감옥에 있었으며, 사십대에서 일흔 살로 죽을 때까지는 시인의 이름으로 살았다. (p.16)

유명하지만 돈을 쫓지 않는 오로지 순수시만을 쓰는 국민시인의 조용한 일상에 은교가 갑자기 뛰어든 것이다.

> 그렇다. 그해 가을, 내 집에 하나의 움직이는 '등롱'이 들어왔다. 사실이다. 내 자의식에 인화된 사진 속 나의 집은 그 애를 만나기 전까지 오로지 우중충한 무채색의 어둠에 싸여 있었다. 에드거 앨런 포의 허물어져가는 '어셔 가'저택처럼. 그 애가 들어오고, 비로소 내 집에 초롱이 켜졌다. 가을이 깊을 때 까진 말 그대로 그 애는 다만 꽃 초롱, 혹은 등롱이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은 비교적 양지바른 곳에 은거해 있었고, 특별히 포악스럽지도 않았다. (p.58)

양지바른 곳에 은거해있던 적요의 욕망이 활성화된다. 처음부터 은교를 음심(淫心)으로 본 것은 아니다. 나중에도 그랬다. 그 애는 대부분 손녀 같았고 어린 여자 친구 같았으며 아주 가끔은 누나나 엄마같이 군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나의 가슴팍에 헤나로 창을 그리던 날 돌연히 페니스가 솟구쳐 일어난 이후부터, 분명히 음심이라고 불러야 할 욕망이 내 속에 똬리를 틀고 앉았다. 때에 따라선 그 욕망이 주인 노릇까지 하려 들었다. 아주 고약했다. 나로선 예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었다. 조금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낯설었다. 발기한 페니스의 모양이야 똑같았겠지만, 내게는 예전과 모든 점에서 확연히 달랐다. 게다가 그날 이후에는 페니스가 저 혼자 서는 일도 생겼다.」 적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맸고 자존심 상해했고 무참해 한다.

> 아, 나는 한은교를 사랑했다. (p.7)

은교는 이제 겨우 열일곱 살 어린 처녀이고 적요는 예순 아홉 살의 늙은 시인이다. 아니, 새해가 왔으니 이제 일흔이다. 그 사이엔 오십이 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당신들은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 변태적인 애욕이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부정하진 않겠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여기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는데 혼자 너무 고민이 깊다. 사랑의 발화와 그 성장, 소멸은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설파한 것은 명저 『팡세』를 남긴 파스칼이고 사랑을 가리켜 분별력 없는 광기라고 한 것은 셰익스피어다. 사랑은 사회적 그릇이나 시간의

눈금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본래 미친 감정이다.」라며 구구절절이 변명을 한다. 단지 노시인은 스스로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을 뿐이다.[25]

처음에 이적요가 은교에게 보았던 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젊음이었다. 자신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은교는, 아직도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정 반대의 극단에 선 존재[26]였던 것이다. 적요와 은교의 첫 데이트는 이러저러 사건들로 파탄이었다. 적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한다.

> 그 애와 촛불이 켜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와인으로 건배를 하면서 저녁한때를 보내고 싶은 꿈이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꿈이던가. 감미로운 발라드를 한곡쯤 백뮤직으로 거느리고 그 애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면서, 낮에 있었던 일이며, 앞날의 희망이며, 그리운 사랑에 대해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는 꿈이 혁명보다 더 불온한 꿈이던가. 다 발라먹고 버린 탁자 위의 돼지 뼈들이 늙은 나, 혹은 늙은 나의 꿈처럼 느껴졌다. (p.279)

여기에 더하여 믿었던 제자 서지우는 적요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상대적인 젊음」이라는 무기로 폭력을 가한다.

> "일흔이 다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이 불능인데도, 욕망은 젊을 때 그대로인 사람, 봤습니다. …손녀딸보다도 훨씬 어린 소녀를 볼 때도 눈빛에 이글이글. 욕망의 불길이 솟구치는, 그런 노인을 요. 본능이죠. 본능이란 원래 추한 거예요. (p.70)

서지우는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일부러 「일흔 살이 다 된 노인」이라는 말을 썼고 「불능」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27] 미성숙한 사회의 일면이라 볼 수 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한 개인의 노력과는 별개의 것들에 관해선 차별하거나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서지우는 넘어설 수 없는 스승의 능력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이 어떠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미 그런 식으로 서지우의 캐릭터는 설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은교』를 세상에 내 놓게 되는 필연적 장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서지우는 은교를 진심으로

---

25) 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노인들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타인들에 의해 결정된 자신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있어 또 다른 불행은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불일치에서 온다.(시몬 드 보부아르 저, 홍상희 박혜영 역(2002)『노년』책세상, p.770)

26) 이채원(2012)「(대중)소설과 (대중)영화가 당대의 사회 규범과 소통하는 방식-소설『은교』와 영화 [은교]를 중심으로」『문학과 영상』제13권 4호

27) 「본능은 시궁창, '본시창'이라고, 또한 덧붙였다. 은교에게서 '현시창'이라는 말의 뜻을 들을 때 선생님과 함께 있었으니 당신도 그 속어를 알아들을 터였다.(본문 p.71)」까지 덧붙인다.

사랑했을까? 적요가 곁에 없는 은교, 적요의 관심 밖의 은교는 서지우에게 있어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일 수 있을까? 적요는 은교에게서 본인이 상상한 이상적인 처녀를 꿈꾸고, 서지우는 은교에게서 적요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적요와 서지우는 은교를 사이에 두고 애증의 관계임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그것이 셋의 관계 속에서 은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서지우는 문학적 재능이 전혀 없는, 그러나 작가로서의 성공을 욕망하는 캐릭터다. 「별이 다르다」는 것을 10년 만에 안다는 것은 그가 문학가이기보다는 공학적 인물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요 또한 「無機재료」「武器재료」를 착각할 만큼 서로의 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그는 문학에 대한 동경으로 스승 이적요의 곁에 있기를 자청한다. 사실 스승과 제자라고는 하지만 서지우는 수족이나 마찬가지다. 아마도 이적요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홀로 있기 너무 외로워 먼저 다가온 그를 내치지 않았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나와 준고의 욕망이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근원적 고독과 소외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은교와 적요, 서지우의 욕망은 서로에 의해 발화된 영원성에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적요에게 있어 은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상상 속에서 꿈꾼 영원한 처녀성이라면, 서지우에게 있어 이적요는 존경하는 절대적인 스승의 모습과 인정받고 싶은 질투의 대상이라는 양면이 보인다.

3. 금기 : 윤리적 사회의 틀 속에 억압당해 있는 원초적 본능

이적요에게 있어서 집[28]은 아주 많은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 집 자체가 이적요의 캐릭터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늙고 뭔가 음울하고 억압당해 있는 그런 집의 분위기, 쓰러져 가고 있는 노시인을 대변한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적요의 숨겨진 본능이자 비교적 좁고 제한된 그의 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의 질서와 사회적 관념에 따른 이적요의 의식을 상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 은교를 목격하게 되는 곳으로, 젊음과 관능에 매혹당해 억압되고 은폐된 이적요의 무의

28) 집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가족이 함께 깃들이는 보금자리로 비유적으로는 가정이나 가족 집단 혹은 공동 생활체를 뜻하기도 하고, '자손', '가문', '왕조', '백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상징적으로 격리, 폐쇄 그리고 닫힌 공간으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하며 내부를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기능이 있다. (이승훈(2009)『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푸른사상, p.179)

식을 일깨우는 장소다. 즉 집은 이적요의 금지된 욕망이 발생하는 곳이며 금기를 해제하기도 하는 곳으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중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죽음보다 황홀하고 인생보다 고통스러운 꿈이었다. 아 그곳은 호텔 켈리포니아. 누구든 '방'을 얻을 수는 있지만 빠져나올 수는 없는 곳.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원했던 결과였다. 출구를 찾아 헤맬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끝내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었다. '콜리타스'향기 가득하고 햇빛이 넘치는 그곳. 호텔 켈리포니아에서. (p.345)

현실에서 억제된 욕망은 꿈을 통해 17세에서 80세까지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호텔 켈리포니아의 방에서 은교와 자유로운 사랑을 나눈다. 시인은 평생 온갖 명분의 깃발을 치켜들고 살아왔다.「내가 온갖 불온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진실로 간절히 그리워한 것은 '처녀'의 '숨결'이었다는 것이다. … 잠든 너를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내게 허용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샤샥샤샥, 바람보다 빨리 흘러가는 소리가 훤히 들렸다. 폭풍 같은 슬픔이 나를 후려치고 지나갔다. 그 슬픔 속에서. 어찌 내가 너를 만지고 싶지 않았겠는가. 물고 빨고 싶지 않았겠는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너를, 어찌 죽이고 싶지 않았겠는가. 돌이켜보면 나는 많은 순간 너를 죽이고 싶었다.」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것만큼 옆에 잠든 은교를 원했다.

인간의 성욕은 생식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즉 성적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고 상호 지간의 유대감을 확인한다. 또한 인간의 경우 생리적 측면 이외에 심리적 기제가 성욕의 작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성욕도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함축한다.[29] 이런 점에서 인간의 성욕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노인의 성 또한 젊은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번져 나왔다.…관능적이었다. 아침햇살로 밝혀진 그 애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말할 수 없이 애련했다. 그 애를 품안에 담쑥 안아 뉘고서 온종일 머리와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고, 홍옥 같은 입술과 뺨에 입 맞추고. 가슴에 귀를 댄 채 그 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모르내리는 아랫배에 코를 분지르면서 그 애의 숨결 속으로 자맥질 해 들어가고 싶었다. 놀라운 관능이다, 라고 나는 느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페니스는 고개를 기웃하다 말고 곧 잠잠해졌다. (p.308)

29) 철학연구회 편(2003)『성과 철학』철학과 현실사, pp11-14 참조.

이적요 시인은 풍채가 우람하고 힘도 엄청 센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는 한은교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한은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이적요는 매춘부를 찾지만 이미 늙은 육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는 은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시고 싶으시면요, 키스 ……하셔도 돼요……" (p.354)

의외로 은교는 나이에 맞지 않게 남자에게 여유롭다. 적요는 폭풍 같은 울림을 느낀다. 「나는 떨면서 그 애의 이마에 입 맞췄다.…나아가고 싶은 수많은 길이 그 애의 몸속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길이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 그 애를 조금이라도 망가뜨리는 길이면 어쩔 것인가.」 적요는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노인인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긴장감과 욕망이 오히려 감미롭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멍청한' 서지우의 머리로는 그 애의 머리칼만을 만졌을 뿐인 순간의, 내 충만감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며 비교의 우를 범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경배가 놀라운 관능일 수 있으며, 존재 자체에 대한 뜨거운 연민이 삽입의 순간보다 황홀한 오르가즘일 수 있다는 것을 「멍청한」 제자는 꿈엔들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 자위한다. 급기야 아름다운 처녀 은교를 지켜주기 위해 노시인 이적요는 욕망을 다스리는 즐거움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작가 박범신이 발견한 출구인지도 모른다.

단편소설을 훔쳐낸 일은 그의 '사죄'를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였다. 사흘간이나 계속 쫓아와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우짖으니 당할 재간이 없었다. (p.299)

적요는 돈을 훔치는 것도 나쁘지만 죽을죄라고 할 수는 없으나, 탐욕[30]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서지우의 탐욕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간다.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탐욕은 놀랄 만큼 증식이 빠르다. 탐욕이 서지우 자신을 옥죄고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적요는 생각한다. 단편소설을 훔치고 돈을 훔친다. 다음엔 더 무엇을 훔칠까 염려한다. 「감히 나의 왕국인,

30) 탐욕은 현재와 과거에 보편적으로 존재한 죄악이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장황한 죄악이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탐욕에 붙은 별명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본성에 충실하게 '욕심','갈망'.'욕망','허욕' 등의 별명이 붙는가 하면, 한층 구체화되어 '인색'이라는 별명이 붙기 도 했다. 그리고 1175년경에는 '성직매매'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이것이 아마 탐욕의 가장 황당한 별명인 듯 싶다.(Phyllis A Tickle 저·남경태 역(2004)『탐욕』황금가지, p.21)

나의 고유한 '내 집'에서.」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에서 자신이 추앙하는 처녀가 공격 받을까 염려한다.

> "원조교제 하자는 거죠?"
> "이 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 "선생님 참 볼매예요. 볼수록 매력요. 원조교제가 뭔데요? 나는 열공할 시간 선생님하고 밥 먹어주었고 선생님은 돈 주었잖아요? 그게 원조교제예요. 이미 시작해 놓고서 왜 생까는 거예요?"
> 그 말의 파장은 그러나, 내 안에서 엉뚱하게 번졌다. 그때부터 오히려 그 애한테 불온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p.173)

한편 은교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던 서지우가 은교를 품에 안은 건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자신도 은교에게 스승과 같은 고뇌하는 문학자로 비춰지길 원하는 욕망과 함께 적요에게는 은교를 실제로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픈 욕망이 그것이라고 보인다. 사실 노인과 여고생이라는 점보다는 덜하지만, 37세의 이혼한 남자 어른과 여고생의 정사 역시 사회 윤리 속에서 허락되긴 어렵다. 그러나 질투의 감정[31]에 사로잡힌 서지우에겐 이미 이런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사랑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내 남자』에서는 집은 금기를 해제하는 직접적인 장소로 활용된다. 열여섯 살 차이가 나는 준고와 하나, 그들은 부녀라기보다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누이지간 같지만 서로를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묘하게 자석처럼 끌려 친 가족 이상으로 친밀함과 유대감을 나누며 살게 된다. 그 둘을 탯줄처럼 엮어놓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 극단적인 허무함은 상대방을 향한 처절한 욕망으로 변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집 밖에서는 엄연한 부녀관계를 유지하지만 집안에서는 세상에서 절대 하나밖에 없는 연인이자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 그날 밤은 여름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시원했다. 그런데도 준고는 한밤중에 땀에 푹 젖은 채 눈을 떴다. 준고의 몸에 딱 붙어 자던 나도 이불 속에 고여 있는 화끈하고 탁한 열기에 눈을 떴다.
> "아빠, 아빠, 왜 그래?"라고 물었다.
> "너무, 외로워.……견딜 수 없이"
> 준고가 내게 늘 그러는 것처럼, 다른 팔로 머리를 감싸고 가슴에 꼭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31) 질투만큼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감정도 없다. 삼각관계 속에서 주로 일어나는 질투에서「경쟁자를 폄하하는 목적은 자존심에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즉 경쟁자 폄하는 다른 의미에서 자기 가치를 회복하려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데이비드 버스 저·이상원 역(2000)『위험한 열정 질투』추수밭, p.306 참조)

뒤바뀌고 말았다. 평소의 준고는 가여운 어린애로 나는 어른으로.……
준고가 내게 굴복하듯 고개를 숙이고, 달짝지근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엄…마-…!"
"그…래"
침으로 끈끈한 팔을 뻗어 준고의 머리를 껴안았다. 역시,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와 이 사람은, 무척 닮았다. 나와 이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인연이 있다. 나와 이 사람은, 피가…….
"엄마! 엄마! 하나…….하나……"
"왜? 왜. 그래?"
밤에만 남모르게 어른이 되는 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어른이지만 인간은 아니었다. 나는 준고의 딸이며 엄마이며, 피로 가득한 주머니였다. 딸은, 인형이다. 아빠의 몸 앞에서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뭐든지 삼켜버리는 새빨간 생명의 구멍이다. …… (pp.427-431)

하나와 준고가 남녀로서 첫 관계를 맺는 장면이다. 근친상간의 장면답게 출생의 비밀이나 근원적인 외로움 등으로 포장하여 극적 효과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근친상간을 표현하는 작품들은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페리클레스』[3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엔타이어커스 왕의 수수께끼는「독사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살을 먹고, 남편을 구하다 끝내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 아버지가 아들이요, 남편이고, 자신은 어머니요, 아내요, 딸이니. 어떤 관계인가? 두 사람이」[33]였다. 이에 대한 답으로 페리클레스는 엔타이어커스 왕에게「근친상간으로 영혼까지 더럽힌 지금 너는 아버지이자 아들이다. 여식과 패륜의 정을 맺고 있으니까 아비가 아니라 남편의 쾌락이다. 그리고 공주는 어미의 살을 먹는 자이다. 부모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둘 다 독사와 같다. 달콤한 꽃을 먹고 있지만 독을 뿜고 있는 것이다.」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불길한 뒷일을 예견한다.「지혜가 있다면 알 것이다. 부끄럼 모르는 무리들이 밤보다 더 검은 행위를 하면서 빛을 멀리하게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구나. 한 죄악은 다른 죄를 불러일으킨다. 불꽃에 연기가 따르듯 색욕에는 살인이 따르는 법, 독약과 배신은 죄의 두 손과 같으니 치욕을 막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며 도피한다. 여기서 근친상간의 비극적 종말을 볼 수 있다.「색욕에는 살인이 따르는 법」처럼 준고와 하나도 본인들의 죄를 덮으려고 2번에 걸친 살인을 하게 된다.

32) 타이어의 영주인 페리클레스는 엔타이어커스 왕의 딸에게 청혼을 한다. 많은 구혼자들 중에서 공주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낸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하고,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목이 달아나게 된다. 하지만 수수께끼에는 다른 비밀이 숨어있다. 현명하고 이성적인 페리클레스는 수수께끼의 비밀이 공주와 엔타이어커스 왕의 근친상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답을 말하지도 못하고 모른다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페리클레스는 엔타이어커스 왕이 보낸 자객들을 피해 정처 없이 여행길에 오른다.(페리클레스[DVD 자료]directed by David Jones,BBC: Dawoori Entertainment Co.2007)

33) 셰익스피어 지음(2007)『셰익스피어 6대 희극』惠園出版社, pp.320-397

"음, 피라는 것은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몸속에,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잃은 소중한 것이, 전부 있을 거야. ……요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p.442)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밤이 새도록 준고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오래전 옛날에 땅에 묻었던 무언가를 부삽으로 파내는 것처럼. 피로 연결된 이 아이의 몸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준고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잃었다고 생각한 소중한 것이, 전부 그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근친상간 모티프는 그것이 서사물 속에서 부친 살해 모티프[34]와 더불어 나타나거나 독자적으로 드러나거나[35] 간에 상관없이, 비극적 운명을 통한 근원적인 욕망 충족의 상징적 형상화와 명시적 형상화라는 두 갈래의 방향성을 결과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모티프가 가지는 방향성은 때때로 텍스트 속에서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로 드러나는 편이다. 특정 텍스트 속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오빠와 누이동생 사이의 성관계는 순수하게 성적인 욕구나 충동의 측면에서 금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대체로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후에 자신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회한스러운 비극적 운명에 빠지고 만다는 일종의 원죄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러한 성적인 심리의 표현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친구에게 딸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욕정의 대상으로 보는데 스스럼이 없다.

"진짜 귀엽다.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
"겉보기는 그래도 악마야. 나 아무래도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글쎄.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데 그것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누구, 아는 사람 없어?" (p.442)

『내 남자』의 경우 처음부터 부녀관계인 점을 알면서 시작했고 끝없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모두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비극적 운명을 복합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 모티프를 금기 타파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심리를 공공연하게 부각시킴으로써 금기적 제재에서조차도 자유롭고자 하는 예술 정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향마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4) 오이디푸스 신화
35) 측천무후, 양귀비, 김춘수와 김유신 등

내 몸에서 지금껏 맡아 본 적 없는 새싹 같은 싱그러운 냄새가 났다. 뭐지, 이 냄새는?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것이 가족의 냄새, 비릿하고 축축하다. (p.432)

또한 이야기의 심미적 구조화의 여부에 따라서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이나 근원적인 심리, 문화의 원형 등에 대한 탐색을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도덕성과 예술성을 함께 고양시키는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 남자』는 그런 위치까지는 끌어가진 못하고 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야 내 알지……"
"하지만 어르신 결손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p.404)

「실은 어르신이 심하게 반대했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야. 몇 번이나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오시오 할아버지(大鹽さん)는 준고의 성향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느낀 것이다. 준고는 중학교 때 친척과 사생아를 낳은 경험이 있고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이 불안을 초래했을 것이다.

영화 <내 남자>에서 쿠마키리 카즈요시 감독은 영화에서 늘 표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리얼하지만 어딘가 초현실적인 부분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의 연출은 욕망의 각성에 특히 신경을 써서 인상적으로 남기게 되었다[36]고 한다.

'처녀'라는 어휘가 얼마나 신비한지 너는 모를 테지. 시간의 장애는 이럴 때 나타난다. 어떤 낱말에서 각자 떠올리는 이미지의 간격은 때로 저승과 이승만큼 멀거든.…… 단언컨대 너와 나 사이에서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에게 처녀는 그냥 처녀일 뿐이겠지만, 나에게 그것은 처음이고 빛이고 정결이고 제단이다. 예로부터 신과 통하는 신관도 처녀이고 신께 바쳐지는 제물도 처녀였어. (p.92)

은교는 이적요에게 신성함 그것이었다. 성교와 제사에 대한 고대의 비교 속에서 곧잘 드러난다. 욕망하는 대상인 희생물의 옷을 벗기고, 그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듯이, 위의 행위도 의도적인 것이다. 피의 제사장이 제물로서의 인간 또는 동물을 해체시키듯이 사랑하는 남자는 사랑의 대상인 여자를 해체시킨다. 여자는 그녀를

36) 인터뷰.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핏빛 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처리하여, 하나와 준고 그들이 처한 피투성이의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덮치는 남자의 손아귀에 그녀의 존재를 빼앗긴다. 여자는 타인과 거리를 두고 지키던 그녀의 단단한 요새가 일단 무너지면 수치심도 잃는다. 그녀는 갑자기 생식기관에서 터져 나오는 성적 유희에 몸을 맡기며, 마구 파고들어 그녀를 넘치게 하는 비인격적 폭력에 그녀를 연다.[37] 이것은 하나나 은교의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도 읽을 수 있다.

> 얼마 전까지 아직 어린아이에 늘 수동적이었는데, 지난 반년동안 하나의 육체는 거짓말처럼 숙달되었다. 마치 자신과 나이차가 그리 없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도립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하나의 보습을 보고 허탈하게 웃었던 것이다. (p.388)

여자는 수동적인 태도로 남자의 욕망을 건드려, 남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쫓아오게 해서 결합을 꾀한다. 여자는 매혹적인데 그치지 않고 유혹적이다. 여자는 남자의 공격적 욕망의 대상을 자처한다.[38] 친부모 자식 사이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하나, 「딸은, 아버지의 부정한 신」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호적도 바꾸지 않을 거고 어른이 되어서도, 쿠사리노란 성으로 남아 있을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뼈가 된 후에도 나는 준고와 함께 있을 거야."
> (p.251)

유빙 위에서 떠내려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지키려고 했던 오시오 할아버지는 외친다.

> "가족이란…… 굳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p.256)

준고와 이적요의 나이차나 사회적 배경이 전혀 다르므로 욕망 표현의 방식이나 차이가 드러나겠지만, 준고는 이적요가 다다른 욕망 제어의 기쁨을 모르는 나이라고 볼 수 있다. 준고는 서지우 정도의 통제력과 가족상실이라는 병인으로 인해 하나에 대해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준고는 중학교 때 이미 근친상간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 지금은 그 딸에 대한 이중의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오시오 할아버지의 예견은 적중하는 듯하다. 이는 욕망을 넘어선 병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이적요와 준고가 각각의 대상소녀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다른 수위로 나타나고

37) 조르쥬 바타유 지음 조한경 옮김(2009)『에로티시즘』민음사, p.103
38) 전게서, p.149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의 수용 문화의 범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9] 이 교묘한 줄타기의 결과 판매부수나 관람객수의 차이로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작가론과 관련지어 볼 때[40]도 작가의 연령대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보수적인 면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적요의 자제는 작가 박범신이 선택한 나름의 현실적인 출구로 보여진다. 반면 젊은 일본작가 사쿠라바 가즈키의 경우 지명도나 연령대나 사회분위기에서 그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보인다. 독자나 관객은 너무 적나라한 진실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4. 균열 : 욕망과 금기에 관한 딜레마

감히 적요의 집에서 서지우가 은교와 관계를 맺은 날, 이적요는 서지우에게 살의를 느낀다. 급기야 서지우의 자동차 타이어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차를 몰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이적요 시인은 젊었을 때 교도소에서 정비공을 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선 해박하다. 그리곤 자신의 차를 만져 핸들이 작동되지 않게 해 둔다. 사고가 났을 때 폭발할 수 있게끔 기름도 새게 한다. 이적요 시인의 계획대로 서지우는 이적요 시인의 차를 타게 된다. 그런데 서지우가 그 차를 타기 직전 이적요 시인은 갑자기 일어나 서지우를 말리려고 한다. 그러나 간발의 차로 이미 서지우는 떠난 후였다. 여기서 이적요 시인의 서지우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아끼고 정든 고마운 제자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질투나고 미운 대상이다. 이적요는 스스로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식음을 전폐하고 깡소주만 마시는 폐인이 되어 세상작별의 시간만 기다린다.

> "사랑하는 사람이 차를 빌려갔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들렀다고요."
> "정말 운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 "네 분명히 기억해요. 나도 마음이 아팠지요. 의도적으로 누가 너트를 풀어 놓았다는 눈치가 보이자 그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해서요." …결국은 '눈물'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
> (p.374)

39) 『내남자』의 경우, 별점3.5, 만족도데이타평균 6.5였고 관객수 미공개. 『은교』의 경우, 별점3.5 네티즌 평균7.1, 2015년 기준 관객수 130만을 넘어섰다.(http://cinema.pia.co.jp/, http://movie.naver.com/ 참조)

40) 「지난 십여 년간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낱말은 渴望이었다. 『졸라체』와 『고산자』, 그리고 이 소설 『은교』를, 나는 혼잣말로 '갈망의 三部作'이라고 부른다. 『졸라체』에서는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인간 의지의 수직적 한계를, 『고산자』에서는 역사적 시간을 통한 꿈의 수평적인 情恨을, 그리고 『은교』에 이르러, 비로소 실존의 현실로 돌아와 존재의 내밀한 욕망과 그 근원을 탐험하고 기록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박범신(2010)『은교』문학동네, 표지에서)

이적요 시인의 생각과는 달리 서지우는 다행히 그 전에 차의 이상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정비소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한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만진 것 같다는 정비공의 말에 서지우는 이적요 시인의 짓이란 걸 단박에 알아차리고 배신감과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매우 괴로워 한다. 핸들은 고쳤지만 기름이 새는 부분은 정비공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고치지 않고 서지우는 매우 분노하며 울면서 이적요 시인의 자택으로 차를 몬다. 그러나 거칠게 운전하던 서지우는 차 사고가 나 그 자리에서 죽는다. 기름 새는 걸 고치지 않아 폭발도 한다. 엄청난 폭발음을 이적요 시인은 듣게 된다.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이적요 시인이 병원에서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자택에 굴을 파 두었다. 사건 이후부터 스스로 자신을 죽이듯이 오로지 술만 먹다가, 그 굴에서 은교가 준 토끼인형을 머리맡에 두고 숨을 거둔다. 토끼인형은 이적요가 은교에게 토끼를 닮았다고 하자, 자신이 없을 때도 인형을 보면서 기억해 달라고 은교가 선물한 것이었다. 결국 이적요는 은교와 함께 임종을 맞이했던 셈이다.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던 그날 새벽, 스승이 충동적으로 뛰쳐나오며 「여보게!」하고 불렀을 때, 서지우는 시인이 눈빛으로 보낸 「우주의 신호」를 알아들었던 게 확실했다. 서지우는 「시인」이 될 수 없는 「멍청한」 인간이 아니었다. 틀린 것은 서지우가 아니라 노시인이었다. 이적요 시인은 「완전범죄」에 실패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적요가 서지우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후 시인은 스스로를 굴에 유폐시킴으로써 서지우가 이적요를 죽인 것이 되는 셈이다.

한편 적요나 서지우와 달리 변호사는 은교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가 보기에 은교는 눈에 확 띄는 미인이라곤 할 수 없었다. 「키도 보통이었고, 시인이 고혹적이라고 말했던 허리 라인도 그만한 나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곡선이었으며 가슴 사이즈 또한 특별하지 않았다. 얼굴이나 피부가 티 없이 정결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거리에 나가면 그런 피부를 가진 여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향기로운 윤기로 빛난다고 묘사한 머리칼도 그렇고 맑은 눈빛도 그렇고 길쭉한 목선과 날씬한 종아리도 그랬다. 열일곱, 혹은 스무 살의 생머리, 눈빛이 누군들 맑지 않겠는가. 은교는 그냥 밉지 않은, 좀 귀엽고 정결한 이미지의, 그 또래 보통 여자애」에 불과했다. 이적요 시인이 본 경이로운 아름다움이란 은교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단지 젊음이 내쏘는 광채였던 것이다. 소녀는 「빛」이고 시인은 늙었으니 「그림자」였다. 단지 그게 전부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은교」의 캐릭터는 이적요나 서지우와 같은 은교에게 경도된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판타지적인 캐릭터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은 치명적인 삼각관계인데 은교를 사이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지우와 이적요 시인 사이의 애정이 근원적으로 깊을

지도 모른다고 봐요. 이적요 시인의 마음속에 은교는 영원한 어떤 처녀성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17이라는 나이에 너무 관객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마흔일수도 있고 예순일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자 주인공이 마흔이라고 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드라마가. 17이라고 해야 금기가 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안 될 나이의 편차, 그것은 그 어떤 극적 긴장을 주기위해서 설정한 건데」[41] 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작가가 의도한 은교의 이미지는 영원한 처녀성 순결성 불멸성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과연 은교는 그러한가? 은교는 누구의 이상도 아닌 은교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요가 꿈꾸는 처녀인 은교는 사실은 처녀가 아니다. 서지우는 첫 경험의 상대라고 걱정하나 은교로서는 첫 경험도 아니며, 사랑해주길 원하나 한쪽으로 완전히 몰입하여 사랑해주지도 않는, 아주 당찬 주체로서의 여고생이다.

변호사를 접견하면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정보와 변호사의 정보를 가늠하며 줄다리기를 할 줄 안다. 19층 변호사 사무실의 전망을 맘에 들어 하며, 이런 성공한 공간을 본인도 갖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여대생으로 자란다.

삶의 무게에 겨워 그녀를 때리는 엄마를 피해 가출도 하지만 자신에게 분풀이하는 엄마의 삶을 이해한다. 은교는 대학에 가야 제 인생의 새날들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민한 애였다. 심지어 서지우와의 교제에서도 주도권은 은교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늘따라 내 몸은 그 애를 너무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애의 가슴을 사납게 애무했다. 그 애가 뭐라고 자꾸 입속말을 하고 있었다.
>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 "아이 참, 영어 단어 암기해요. 내일 영어 시험 본다구요! " 그 애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는 김이 팍 새서 위로 말아 올렸던 교복과 브래지어를 끌어내려주고 말았다. (p.168)

또한 서지우의 묘지를 찾았을 때, 우연히 은교를 만난 Q변호사는 서울까지 함께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얘기하기를 원했다. 그때도「차 있는 남자애가 있어서요, 저 오빠, 착해요.」라며 빈차로 따라오게 한다. 심지어 그녀는 변호사에게 외친다.

> "제 조건은요, 절 좀 빼달라는 거예요!" (p.81)

신문이나 언론에 H양이라고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상속이니 뭐니,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41) 박범신 인터뷰,<2012 센세이션을 기대한다>, DVD<은교> disk2.

호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다. 문제해결에 있어 은교는 상당히 주체적이고 상황 판단도 정확한 면을 보인다.

> "할아부지 노트랑 서선생님 일기랑, 다 읽은 변호사님이 절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할아부지, 서선생님, 상관없다는 게 아니구요, 변호사님.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두 분다. 저는요, 진짜요, 좋아……해요. 지금도요. 특히 할아부지는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중이구요."
> "할아부지와 선생님, 서로가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절 사랑한 게 아니예요. 두 분하고 함께 있을 때마다 버림받은 기분은 제가 가져야 했다구요. 진짜로요. 끼어들 틈도 없었는 걸요"
> (p.217)[42]

노시인 적요와 유순한 청년 제자 서지우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정확한 관계정리를 해 주는 셈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은교 방식」으로 산뜻하게 해결해 버린다. 화장실에서 이적요 시인이 남긴 노트와 서지우 작가의 일기를 다 태워 없애버리는 식으로 해결한다. 사본도 없는 유일한 노트이므로 깨끗하게 정리된 셈이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도 밝힌다.

> "저는요, 변호사님. 시……를 쓰고 있어요."
>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미친 듯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요. 웃기죠?"
> "할아부지가……어느 때는 막 미워요……" (p.379)

Q변호사는 비로소 적요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은교는 눈빛이 참 좋다. 그것은 해맑은 재기로 반짝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아득하다. 단순히 젊다고만 할 수 없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신비한' 눈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가끔은 손녀이고 여자 친구이기도 하고 누나나 엄마 같기도 한 영원한 처녀 은교를 둘러싼,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그러므로 영원불멸의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범신이 노시인과 여고생간의 극적 긴장감을 주기위해 설정한 나이차는 52살, 그런데 사쿠라바 가즈키는 역으로 부녀지간의 나이차가 불과 16년 차이다.

절대적으로 서로에 의존하게 된 외로운 두 영혼은 절망적으로 뒤엉키고 어두운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한다. 광기로 가득한 사랑은 이미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고, 이를 눈치 챈 동네

42) 밑줄 논자

노인을 하나는 죽음으로 내몰고 만다.

> 사방 2미터 정도의 조그만 유빙으로 슬쩍 발을 뻗었다. 얼음 뗏목 같은 그곳으로 조심조심, 풀쩍 뛰었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 "아니, 저런! 하나!"
> 오시오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다. 조그만 어린애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자신이 늙은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는 나를 따라 훌쩍 유빙으로 건너뛰어 와, 있는 힘을 다해 내 팔을 잡았다. 어금니를 악문 채 말이 없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 "그 사람은,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제 아비가 사라진, 저 먼 북쪽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 지금이다. 하루 빨리, 떠나거라. 남자와 여자의 인연이란, 질기고 또 질긴 것이다. 나도 다 안다. 그러니, 간단한 짐만 싸서 당장 떠나거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는 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않으마. 너도 악몽 같았을 거야. 알아들었지? 하나야."
> "할아버지, 저는요……."
> "그리고, 호적도 파 내거라. 원래 성으로 돌아가. 아사히카와(旭川)에 있는 친척도 성이 다케나카니까. 깨끗하게 잊어라, 하나야. 다 잊어, 그런 일은."
> "호적, 을요?"
>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 어금니를 더 꽉 깨물었다. 나는 신발 속에서 기어오르는 냉기와, 바다 밑에 사는 끔찍한 괴물의 기척을 느꼈다. 차갑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현실감을 잃었다.
>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 ……죽여 버려.
> 나는 할아버지의 몸을 휙 밀쳐내면서, 정말 어린 수사슴이라도 된 것처럼 조그만 유빙에서 얼음 벌판으로 폴짝 뛰었다. 차가운 바람이 휭 불어와 내 머리카락이 날렸다. 당황한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뛰려고 발을 뻗었다. 나는 그 몸을 한기에 곱은 발로 세 번, 힘껏 걷어찼다. 세 번 다 가볍고 메마른 감촉이 느껴졌다. 오시오 할아버지는 그저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다. 이제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쪼글쪼글하게 주름진 손을 버둥거리며 내 목도리를 잡으려고 했다. 나는 그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쳤다. (p.258)

하나는 어린 나이지만 자기 욕망을 굉장히 잘 알고 솔직한 인물이다. 사건은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버린 동네의 유지, 오시오 할아버지를 하나는 죽이게 된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그들 삶의 태반(胎盤)이랄 수 있는 홋카이도의 몸베쓰를 떠나 동경으로 야반도주를 한다.

> “하나야, 아저씨도 말이지, 너처럼 이 동네에 온지 얼마 안 되었어. 좀 바보짓을 해서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몸베쓰에서 죽을 때까지 살 생각이야. 아저씨는 나쁜 사람을 잡는 일을 하니까. 이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범인을 잡을 거다.” (p.417)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또 한명인 다오카(田岡) 형사의 입을 막기 위해 준고도 또 살인을 저지르고 둘은 철저한 공범이 되어버린다. 이제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키려야 돌이킬 수도 없는 두 사람.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써 공범이 되어버린 두 사람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둘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 「아니야, 마음이 더러운 거야. 나는 쇼코나 아키라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미안해. 벌써 오래전부터, 나는」 유출된 기름덩어리로 덮인 바다처럼, 오래전부터 내 마음은 오염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친구가 알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왜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다르게 살 수는 없었는지. ……나를 아는 사람은 아빠뿐. 나를, 더럽힌. 아빠 뿐. (p.277)

고독하고 허무할수록 그만큼 더욱 지독하고 끈끈한 욕망으로 서로를 옭아맨다. 그러는 동안 준고는 망가져가고 하나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사랑을 동경하게 된다.

하나와 은교를 단순 비교하거나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캐릭터는 적요와 서지우와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판타지적인 캐릭터일 뿐이다. 은교는 노시인 이적요가 꿈꾼,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을 강조한 순결의 이미지화된 여고생일 뿐이다. 갓 초경을 시작한 9세 소녀, 한국나이로 11세의 소녀, 하나는 여고생을 더 어리게 만든 극단적인 이미지일 따름이다.

두 작품의 최고 장점은 솔직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춰진 그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나 관객들로 하여금 가치판단의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은교가 이적요를 찾아가 하루를 묵게 되는 일이 없었다면, 서지우에게 있어 은교가 처녀였더라면, 하나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친척집으로 돌아갔더라면, 등의 가정을 통해볼 때 이적요나, 은교나 서지우, 준고나 하나의 모습이 바뀌었을까? 그들은 과연 다른 선택을 하였을까? 인생의 수많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모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편해 하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테마이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이런 소설은 본 적이 없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존재감이 놀랍다」, 「가장 위험한 러브스토리……이렇게 강하고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연애소설은 처음이다」, 「더러운 늪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 같은 소설」, 「이상한 점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반도덕적 반사회적이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소설이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작품이다. 이것을 세상에 내놓고 한 번 묻고 싶었다.」 등이 『내남자』에 대한 평이었다. 『은교』도 어린 소녀와 노년의 에로스라는 테마가 우리 사회와 주 관객층에게 어떤 불편함을 준다. 두 작품 모두 불편함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 경험은 개개의 형태로 억압당해있는 감수성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 맘속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과 금제된 금기 그리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하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하나는 준고가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진다. 아마 준고는 고향인 바다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나가 사라진 집에서 준고는 혼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오시오 할아버지가 외쳤던, "가족이란…… 굳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야……"처럼, 이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더러운 늪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 쿠사리노 하나에서 이제 스스로 새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한다하더라도 하나는 일생 준고와 함께하는 삶일 것이다.

『은교』에서 서지우와 이적요 시인 사이에는 예술가적 갈등이 있다. 서지우는 재능은 없으나 유명한 예술가는 되고 싶은 사람이고, 적요는 예술가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자기절제를 통해서 평생 살았던 인생에 은교를 만나게 되면서 과연 보람 있는 인생이었나에 대한 회의에 빠지는 역할이다. 가끔은 손녀이고 여자 친구이기도 하고 누나나 엄마 같기도 한 영원한 처녀 은교를 둘러싼,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욕망과 애증의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나 은교에게 있어 준고와 서지우 이적요 또한 분리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상식을 가볍게 짓이기며 전개되는 가장 위험한 러브 스토리, 광기로 가득한 사랑에 선도 악도 그 경계를 잃어버린 하나와 준고의 사랑의 행위는,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적요의 욕망의 수위가 자제의 미덕으로 나타난다든지, 꿈에서 사랑이 펼쳐지는 것으로 볼 때, 한국사회가 좀 더 폐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미경험의 세계를 배운다. 또한 문학에 경험한 소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간은 시대가 지닌 무수한 욕망과 사회적 윤리의 측면에서 교묘한 경계의 줄타기를 하며 살아간다. 그 유지와 균열의 경계선을 심리적 동요 없이 살아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균열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균열을 지닌 채 규범의 틀 안에서 살아가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파열일 것이다. 다만 그 유지의 시간만이 다를 뿐이다. 롤리타의 험버트 교수도 이적요도 준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멈춰지지 않았던 것, 멈출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짧은 생각의 장이었다. 이들이 오히려 사회적 윤리 속에 스스로를 더 가둔 것은 아닐까? 그것이 그들 나름의 자기 심판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參考文獻】

桜庭一樹(2010)『私の男』文藝春秋
박범신(2010)『은교』문학동네
사쿠라바가즈키 저·김난주 역(2008)『내남자』재인
최혜실 외 (2007)『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다ㅎㆍㄹ미디어
김동연·최외선(2000)『성인미술치료』동아문화사
일본고전독회(2013)『에로티시즘으로 읽는 일본문화』제이엔씨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고봉만 역(2008)『보다 듣다 읽다』이매진
김윤식(1999)『문학용어사전』일지사
이상섭(2001)『문학비평용어사전』민음사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문학비평용어사전』국학자료원
이승훈(2009)『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푸른사상
남경태(2006) 『개념어 사전』들녘
정형(2009)『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공의식(2005)『새로운 일본의 이해』다락원
이승구 외(1990)『영화용어해설집』영화진흥공사
루이스 제네티 저·김진해 역(2002)『영화의 이해』현암사
송희복(2002)『영상문학의 이해』도서출판 두남
페리클레스[DVD 자료.2007]directed by David Jones,BBC: Dawoori Entertainment Co.
셰익스피어 지음(2007)『셰익스피어 6대 희극』 惠園出版社
한용환(1999)『소설학 사전』문예출판사
한국현대소설학회(2006)『현대소설론』평민사
조르쥬 바타유 지음 조한경 옮김(2009)『에로티시즘』민음사
김준오(1991)『시론』삼지원
이정일(1995)『시학사전』신원문화사
M. H. 애브러함즈 저·이명섭 역(1985)『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을유문화사
P. 휠라이트·김태옥 역(1982)『은유와 실제(Metaphor And Reality)』문학과 지성사
S. K. 랑거(1984)『예술이란 무엇인가』문예출판사
고상균 외(2014)『인간의 성』바이오사이언스출판

파트릭 쥐스킨트 저·안성권 역(1992)『향수』재원
시몬 드 보부아르 저·홍상희 박혜영 역(2002)『노년』책세상
Phyllis A Tickle 저·남경태 역(2004)『탐욕』황금가지
철학연구회 편(2003)『성과 철학』철학과현실사
데이비드 버스 저·이상원 역(2000)『위험한 열정 질투』추수밭
강신주(2013)『강신주의 다상담1,2,3』동녘
이규헌(2014)『황혼의 체온』행복에너지
이인식(2004)『짝짓기의 심리학』고즈윈
上野千鶴子·中村雄二郎(1994)『人間を超えて』河出文庫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욕망과 금기의 균열

－사쿠라바 가즈키의『내 남자(私の男)』와 박범신의『은교(*Eengyo*)』를 중심으로－

오늘날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소설이나 영화라고 할 것이며, 이들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은 그 사회상의 반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소설과 영화로 제작된 사쿠라바 가즈키(桜庭一樹)의『내 남자(私の男)』와 박범신의『은교』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두 작품은 구성 및 각색상의 유사성과 함께, 소재의 유사성, 양식의 유사성, 발표 방식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양국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 속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삶의 유한성에 의한 존재론적 슬픔에 따른 깊은 욕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윤리적 사회의 틀 속에 억압당해 있는 원초적 본능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금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욕망과 금기 사이에서 멈추고자 하였으나 멈출 수 없었던 의지의 균열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친상간, 늙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또한 현재를 살아내는 고독한 인간들의 일면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당대 한일 양국 사회문화의 이해와 문학적 교류를 통한 세대 간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다.

Crack between Desire and Taboo

－Centering around『My Man』by Sakuraba Kazuki and『*Eengyo*』by Pak, Bum-Shin－

Today, we can say that one of the easiest ways to lead public culture is a novel or a movie and that the theme handled by them is the reflection of a social aspect.

In this study,『My Man』by Sakuraba Kazuki and『*Eengyo*』by Pak, Bum-Shin which have been written as novels and filmed will be compared.

The two works had similarities enough to be objects to be compared in the both countries in terms of material, styles and presentation method as well as composition and dramatization. In this study, deep desire caused by sadness of the existence of limited life which was shown consistently in the two works was investigated. The fatal taboo touching basic instinct which was suppressed in the frame of ethical society was also investigated. Thereby, the crack of a will which tried to stop between desire and taboo only to fail could be read. All of this process can be seen as a typical model of humans who can't get out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he present days. We could also see that incest and fundamental question about aging are related with an aspect of a solitary human living today. Through this work, it could be an opportunity to help understand each other between generations through literary exchange and socio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both countries, Korean and Japan.